

놀이성에 따른 일탈적 관광행동의 차이분석*

A Difference Analysis of Tourist Deviant Behaviour by Playfulness

이 훈** · 최 일 선***

Lee, Hoon · Choi, Il-Su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henomenon of deviant tourist behavior. This tourist behaviour is seen as being deeply related to tourists' inherent propensit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playfulness. In order to understand tourist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deviant tourist behaviour and tourist satisfaction were analysed from a total of 1148 survey responses collected from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showed higher playfulness of tourist influences on more deviant tourist behaviour. Otherwise stated, deviant tourist behavior is a desire for hedonic value; one such is playfulness as an approach of hedonic value. Thus, human beings' playfulness influences on their behaviour in tourist destinations. Moreov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deviant tourist behaviour and tourist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re w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eviant behaviour and satisfaction. As it could be stated, tourists whom indicated social deviant experiences at tourist destinations, they could experience greater legal and social risks which could reduce their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internal deviant tourist behavior, there were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The result of analysis further showed that more commitment in the tourism, the tourist satisfaction was more increased.

핵심용어(Key words) : 놀이성(Playfulness), 일탈행동(Deviant behaviour),
관광만족도(Tourist satisfaction),
일탈적 관광행동(Deviant tourist behaviour),
놀이성 측정척도(Measurement scales of playfulness)

*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B00917)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e-mail: Hoon2@hanyang.ac.kr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e-mail: cis8412@yahoo.co.kr

I. 서론

관광에서 일탈행동은 보편적 현상이다. 관광에는 일상적 공간을 떠나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으며(Yuan & McDonald, 1990), 실제 관광객은 관광지에서 일탈경험과 일탈행동을 추구한다(국제신문, 2012; 뉴시스, 2008; 뉴시스, 2012). 사회학 측면에서 일탈행동은 범죄나 비행의 개념으로 법률, 법규, 규범과 같은 사회풍습을 위반하는 행동을 말한다(진남·김창경, 2011; Osgood, Wilson, O'Malley, Bachman, & Johnston, 1997). 하지만 관광에서 일탈성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규범적 차원이외에도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관광을 현실의 무료함을 벗어나거나 일상의 자극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심리적 과정까지를 일탈 혹은 현실도피적 차원의 행동으로 설명한다(Crompton, 1979; Iso-Ahola, 1981). 즉, 일상의 규정된 생활과 유형화된 삶과 달리 관광활동 속에서 관광객은 평소와는 다른 심리상태와 욕구를 갖게 되며 이것이 일탈형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Currie & Gagnon, 2008; Uriely, Ram & Malach-Pines, 2011).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관광의 일탈성은 관광객의 동기와 특정 유형의 관광 체험의 측면에서만 주로 다루어져왔으며(박진실, 2007; 조태영·서태양, 2009; Crompton, 1979; Iso-Ahola, 1981) 관광객이 실제 일반 관광지에서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Uriely & Belhassen, 2005; Uriely, Ram & Malach-Pines, 2011)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에서의 일탈적 행동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관광에서 일탈행동은 사회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관광객들의 내재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Jackson, White & White(2001; Leep & Gibson, 2008 재인용)는 관광객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관광객 내적성향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내재적 특질로서 놀이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놀이성에 따라 관광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조희범, 2010). 놀이성은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특정 활동을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놀이성은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개인의 심리기제로 작용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auruana & Vella, 2003; Glynn & Webster, 1992; Schaefer & Greenberg, 1997).

Gursoy, Spangenberg & Rutherford(2006)과 Uriely & Belhassen

(2005)는 일탈성 행동이 쾌락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놀이성 역시 개인의 내적인 쾌락추구에 대한 활동으로 이해하였다(서현숙, 2008). 이런 측면에서 놀이성은 내재된 심리적 특질로써 일탈행동과도 관련이 되어, 관광에서의 일탈행동은 놀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탈행동의 유형과 수준은 관광의 종합적 평가인 관광만족과 연관된다. 일탈행동을 포함한 관광체험은 실존적 측면에서 전반적 관광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선·이훈, 2009; Kozak & Rimmington, 2000).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에서 관광객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놀이성에 따라 일탈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놀이성과 관광지 일탈행동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측정지표를 구성하여 전문가관을 통한 조사를 수행하고자한다. 이는 관광객을 본질적으로 놀이자로 보는 관점(이훈·조희범·이영진, 2010)에서, 관광객 행동을 놀이성 수준에 따른 일탈행동의 차이와 일탈행동이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 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문헌 연구

1. 일탈적 관광행동 (Deviant tourist behaviour)

일탈의 표준사전 정의는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나는 것’을 뜻하며(국립국어원, 2012) 일탈행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부과된 규범들을 위반하는 행동’을 말한다(Merton, 1971; Lika & Messner, 2001 재인용). 그동안 일탈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규정이라는 면에서 접근하는 입장이 강하였으며 이는 사회구조(social structure)를 강조하는 이론과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분류된다(Lika, 1986). 사회구조를 강조하는 일탈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머튼(Merton)으로 그의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사회에는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문화적 목표가 내면화 되어 있으며, 그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Lika & Messner, 2001). 즉, 문화적 목표와 달성 수단 간의 불일치가 사회 규범을 위반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과정에서의 일탈은 규범위반이 연속적인 단계로 발전해가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동을 가리킨다(Lika & Messner, 2001). 하지만 이러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개인차를 무시하며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일탈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의 심리구조와 과정 측면에서 설명되며 이는 규범위반으로서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심리학 이론으로는 퍼스널리티 이론(personality theories)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인간을 경향, 욕구, 동기, 충동 등과 같은 일반적 심리특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비추어지는 지를 연구 한 것이다(Lika, 1986). 또한 심리학적 접근 관점으로 Freud와 Jung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Freud의 관점은 무의식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본능적 만족과 사회적 의식 및 가치 사이에서의 갈등을 제시한다. Freud는 일탈행동을 도덕적·윤리적 역할과 감정조절 역할을 해주는 자아(ego)나 초자아(superego)가 적절히 발달하지 못하여 원초적 자아(id)를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Lika, 1986; Lika & Messner, 2001). Jung 역시 무의식을 강조하며 그의 대표적인 원형(archetype) 개념으로 일탈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Uriely, Ram & Malach-Pines, 2011). Jung은 모든 인간의 인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형으로 페르소나를 제시한다. 이는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의 본성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는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 가면을 바꾸기도 한다. 이를 일탈행동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다른 주체가 되어 일탈성을 경험하거나, 가면을 벗고 본능적 일탈성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광에서의 대표적인 일탈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섹스관광(Ryan & Kinder, 1996; Uriely, Ram & Malach-Pines, 2011; Redmon, 2003; Wickens & Sonmez, 2007), 약물관광(Drug tourism) (Uriely & Belhassen, 2005), 고위험추구관광(High risk-taking tourism)(Elsrud, 2001; Redmon, 2003; Uriely & Belhassen, 2005), 갬블링(Goffman, 1967; Uriely, Ram & Malach-Pines, 2011 재인용) 등이 있다. 관광은 '일상 생활권을 떠나 즐거움을 추구하며 다시 돌아오는 활동으로' 장소와 시간의 특성상 일탈적 행동이 일상생활의 환경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Uriely, Ram & Malach-Pines, 2011). 또한 관광은 심리적으로 고도의 일탈 동기와 활동을 수반하고 성인들에게는 놀이, 환상, 모험 속으로 탈출하는 사회적으로 허락된 통로의 역할을 한다(박의서, 2010).

Turner & Ash(1975)는 관광지 환경과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며 관광지는 관광객이 일상에서의 규범과 가치를 유예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공간

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Shields(1992)는 관광지를 '리미널존(liminal zone)'으로 묘사하며 사회적 제약은 최소화 되고 자유는 극대화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설명한다.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으로 보면 섹스관광은 성에 대한 본능이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따라서 평범한 낭만적 휴가가 되거나 상업적 섹스관광이 되거나 할 수 있다(Uriely, Ram & Malach-Pines, 2011; Wickens & Sonmez, 2007). 또한 그의 공격적 본능에 대한 부분은 스포츠 관광에서의 홀리건과 같은 모습으로 일탈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Jung의 방식으로 보면, 일탈적 관광행동은 그의 원형개념(archetype)의 영웅이나 파라다이스에 대한 접근으로 설명된다. 사람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심리로 일상을 벗어나 영웅이 되어 관광지에서 어떠한 보상을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광 중에 모험관광과 같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Uriely, Ram & Malach-Pines, 2011). 또한 그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개념은 약물관광의 맥락에서 접근되어 왔다(Uriely, Ram & Malach-Pines, 2011).

일탈적 관광행동은 관광에서의 쾌락성(Hedonic)의 측면이 강조된다. 이영진(2010)은 레저 및 관광활동에서의 쾌락성을 신기성, 일탈성, 정서적 각성 등으로 설명하며 이는 체험을 통하여 느끼는 재미, 흥분, 즐거움, 희열 등의 감성으로 개념화하였다. Gursoy, Spangenberg, & Rutherford(2006) 역시 축제에서의 쾌락성을 탈출, 판타지 실현(fantasy fulfillment), 각성의 증가 등 감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Uriely & Belhassen(2005) 역시 약물관광(drug tourism)을 설명함에 있어 이들을 '쾌락주의 여행자(hedonistic tourists)'로 묘사하였다. 즉, 관광지에서 보이는 관광객의 일탈적 행동들은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가 표출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축제관광에서도 관광객 일탈행동이 나타난다. 축제는 일상의 금기들이 위반되고 특정 행위들이 허용되는 공간으로(박진실, 2007; 이훈, 2006; 2009) 또는 일탈성을 경험하는 곳으로 규정하는데, 주로 자유로움, 해방감, 기분전환, 일상의 전도 등의 관광객의 내면의 측면에서 다루었다(박진실, 2007). 조태영·서태양(2009) 역시 문화체험관광에서 일탈성을 스트레스해소, 기분전환 등의 내면의 측면에서 분석한바 있다.

한편 관광객의 일탈적 행동은 기존의 관광행동 연구에서 동기의 요소로도 보았다. 예를 들어 Iso-Ahola(1981)는 여행의 동기로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하며 그 하나는 일상 생활권을 탈출하고자 하는 일탈의 동기로 보았고, Crompton(1979) 역시 일상탈출을 관광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탈출동기는 사회적 책임과 스

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나아가 탈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욕구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포괄적 일탈의 의미로 일상권을 떠나 이동하는 소극적 일탈행동에서부터 윤리적 또는 법률적 일탈행동까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Freud 와 Jung의 심리적 접근이 퍼스널리티 이론을 참고로 하되, 관광현상에서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관광지에서의 행동적 일탈시도를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놀이성(Playfulness)

놀이는 인간의 본연적 특질이며 성향으로서 이는 인간을 특화시키는 요소이다(이훈, 2009). 19세기 초 철학자들은 “사람은 그들 자신이 완전한 인간임을 느낄 때 놀이를 하고 놀이를 할 때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놀이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Sutton-Smith, 1985: 64 ; Smith, 1995 재인용). 흔히 놀이는 아이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여가를 어른의 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인으로 사회적 성장과 적응을 해가는 과정에서 호기심이나 유치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이훈, 2009).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놀이성은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내재적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현대적 놀이에 대한 논의는 호이징하(Huizinga)와 카이와(Caillois)의 놀이개념이 대표적이다. 호이징하(1986)는 문화이론 측면에서 놀이에 접근하였다. 그는 놀이를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주요한 주체로 평가하며, 놀이는 자발적 행위, 현실의 삶을 벗어난 활동의 영역, 장소의 격리성과 시간의 한계성이라는 특성을 가짐을 밝혔다. 카이와(2003) 역시 놀이는 자유로운 활동이며 즐거움과 재미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

놀이성에 대한 논의는 놀이를 일으키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Dewey(1913; Webster & Martocchio, 1992 재인용)는 놀이성은 이면의 동기에 관계없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지적 개발로부터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Barnett(1990)은 놀이성에 대하여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수반하여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자신의 목표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부여된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능동적인 관여를 갖는다고 정의하였다.

놀이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한 Liberman(1965; Barnett, 1990 재인용)은 어린이의 놀이성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지각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물리적 자발성, 현재적 기쁨(Manifest joy), 유머감각이다. 이후 Liberman

(1977; Barnett, 1990 재인용)은 어린이의 놀이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놀이성을 연구하여 특징적 놀이성향으로 거친 장난, 적대적 장난, 조롱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아이들에 대한 놀이성 연구는 성인의 놀이성으로 확장되었으며, Glynn & Webster(1992)는 성인의 놀이성을 즐거움을 얻기 위해 특정 활동을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Caruana & Vella (2003)은 진정한 놀이적 상태에서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지루함이나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성인의 놀이성은 일과 연관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놀이성은 지루함과 긴장감을 완화하고 공격성을 막아주며(Bowman, 1987; Guitard, Ferland & Dutil, 2005 재인용), 개인의 능력 향상, 적응력, 커뮤니티 구축 등 전반적인 능력의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Glynn & Webster, 1992, 1993).

이에 Glynn & Webster(1992)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성인의 놀이성을 자발성, 표현성, 재미, 창조성, 분별없음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Schaefer & Greenberg (1997)는 익살스러움, 유머감각, 재미탐닉, 비형식성, 기이함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Barnett(2007)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놀이성을 사교적, 제약받지 않는, 익살스런, 역동적의 특성을 지님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훈·조희범·이영진(2010)은 Barnett(2007)과 Glynn & Webster(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과 직장인 708명의 표본을 통해 '성인의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외향성, 창의성, 즉흥성 세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성인의 놀이성 척도'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일탈행동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일탈적 관광행동, 놀이성, 관광 만족도의 관계

일반적으로 일탈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접근으로 사회구조의 맥락에서나 도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곤 하였다. 하지만 관광지에서의 일탈행동은 인간의 놀이성이라는 내재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Jackson, White & White (2001; Leep & Gibson, 2007 재인용) 역시 관광객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심리적 이론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로이트의 원초자아는 놀이적 특질과 함께 일탈적 행동과도 연관된다. 놀이성은 인간의 내재적 특질이며 성인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놀이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덜한 관광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관광지는 일상을 벗어난 공간으로 성인에게도 유아와 같이 놀이성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한다.

Barnett(2007)의 성인의 놀이성 연구에 의하면 놀이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더 자극적이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Glynn & Webster (1992) 역시 놀이성을 학교나 여가레크리에이션 상황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놀이성이 혁신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Glynn & Webster, 1993). 조희범(2010)은 놀이성 척도를 이용하여 놀이성이 관광체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바 있다.

또한 놀이성에는 쾌락적 가치가 존재한다. 철학자 Freud, Piaget, Vygotsky는 놀이를 충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여기며 이를 개인의 내적인 쾌락추구에 대한 활동으로 이해하였다(서현숙, 2008). 이런 측면에서 놀이의 쾌락추구적 성향은 일탈적 관광행동이 추구하는 쾌락적 가치와 연관될 것이며, 놀이성의 정도에 따라 일탈적 행동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쾌락추구적 일탈행동은 이후 전반적 관광평가인 관광만족과도 연관될 것이다.

Hebb(1949; Leep & Gibson, 2007 재인용)의 최적자극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적정수준의 자극을 선호하며, Berylne(1960; Leep & Gibson, 2007, 재인용)은 인간은 서로 다른 수준의 최적자극 수준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자극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지에서의 활동에 있어서의 적정자극수준이 차이는 일탈행동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광객은 일탈적 행동을 통하여 자신만의 자극 정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관광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관광객의 일탈적 관광행동은 사회적 제약이 최소화되고 개인적 자유가 극대화되는 관광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행동으로 놀이성에 영향을 받으며, 관광만족도와 관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개인의 놀이성 수준차이에 따라서 관광지에서 보이는 일탈적 관광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일탈적 관광행동은 관광경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인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₁] 놀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의 일탈적 관광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₂] 일탈적 관광행동은 관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인 성인의 일탈적 관광행동과 놀이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광경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큰 표본을 필요로 할 때 적합한 조사법으로(Dillman, 2000; Wright, 2005) 본 연구의 목적인 일탈적 관광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한국적 상황에 따른 일탈적 관광행동 구성항목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10명의 1대1 개인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면접의 항목은 총 9개로 나누어졌으며, 이는 지난 일 년 동안의 여행경험, 가장 재미있었다고 생각했던 여행경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와 관광지에서 자신의 다른 점, 여행을 하면서 일탈을 했던 경험, 가장 재미있었던 관광지 일탈경험 등이었다. 이후 관광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에 사용될 설문지의 표현과 항목을 재배열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의 조사는 온라인 전문리서치회사를 통해 2012년 3월 9일부터 2012년 3월 16일 까지 약 1주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총 1776부의 온라인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불응답지와 누락된 응답지를 제외한 114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 항목 도출은 선행연구와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일탈적 관광행동에 대한 측정 요인은 선행연구와 면대면 개인 면접을 통해 16개의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놀이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Barnett (2007)과 Glynn & Webster(1992) 등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실증연구를 통해 척도를 개발한, 이훈·조희범·이영진(2010)의 성인의 놀이성 지표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표 1〉 참조).

〈표 1〉 일탈적 관광행동과 놀이성 설문구성

구성개념	측정항목	참고문헌
일탈적 관광행동	항정신성 약물을 접함 관광 매력물에 나서 및 흔적 남김	박진실(2007); 조태영·서태양(2009); Curie(1997); Goffman(1967; Uriely, Ram

	사행성오락을 함 주위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음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흥분함 즉흥적인 행동을 함 음주를 더 즐김 성적 호기심과 관련하여 더 관심을 가짐 평상시보다 여행지에서 취침 및 기상시간이 불규칙한 편임	& Malach-Pines, 2011 재인용) Lepp & Gibson(2008); Plog(2002); Redmon(2003); Ryan & Kinder(1996); Uriely & Belhassen, (2005); Wickens & Sonmez(2007)
놀이성	밝은, 활기찬, 경쾌한, 사교적인 창의적인, 기발한, 상상력이 풍부한 흥분하기 쉬운, 감정적임	이훈 · 조희범 · 이영진(2010); Barnett(2007); Glynn & Webster(1992)

관광만족에 관한 설문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 지속정도, 추천정도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Beard & Ragheb, 1980; Huo & Miller, 2007; Yoon & Uysal, 2005). 본 연구에서의 관광만족은 관광경험로서의 만족으로 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활동의 의사결정과 지속성에 연관되어지는 포괄적 개념을 의미한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 2〉 표본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연령	20대	238	20.7	성별	남자	594	51.7
	30대	295	25.7		여자	554	48.3
	40대	317	27.6		서울	247	21.5
	50대	260	22.6		부산	80	7.0
	60대이상	38	3.3		대구	58	5.1
최종학력	초등졸업	8	0.7	인천	66	5.7	
	중등졸업	13	1.1	광주	34	3.0	
	고등졸업	214	18.6	대전	35	3.0	
	전문대졸업	220	19.2	거주 지역	울산	29	2.5
	대학교졸업	587	51.1		경기도	268	23.3
	대학원이상	106	9.2		강원도	34	3.0
월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7	7.7		충청도	80	6.9
	200-299만원	182	15.9		전라도	72	6.3
	300-399만원	240	20.9		경상도	130	11.3
	400-499만원	203	17.7	제주도	15	1.3	
	500-599만원	172	15.0				
600만 원 이상	264	23.1					

본 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성별은 남성(51.7%)과 여성(48.3%)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20대(20.7%), 30대(25.7%), 40대(27.6%), 50대(22.6%), 60대 이상(3.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거주 지역에 있어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기혼(68.8%)이 미혼(29.4%)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표 2>와 같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연구의 주요 구성개념인 일탈적 관광행동과 놀이성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측정하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성인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한 9개 항목에서는 공통성이 모두 .5이상으로 9개의 항목 모두를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놀이성에 대한 9개 항목을 의미 있는 요인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배리맥스회전법에 의한 주성분을 실시한 결과 $x^2 = 3633.306$, $p < .001$, $KMO = .832$ 으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탈적 관광행동에 대한 항목에서 요인의 공통성이 .50이하인 1개의 항목을 제거하였다. 이후, 배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주성분을 실시한 결과 $x^2 = 1768.089$, $p < .001$, $KMO = .763$ 으로 나타나 두 구성개념 모두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3>은 항목 제거 후의 사용된 요인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측정변수들의 요인 적재량이 .6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성인의 놀이성 측정지표로 사용한 이훈·조희범·이영진(2010)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하위 구성개념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구성개념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이용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일탈적 관광행동의 육체형 일탈의 Cronbach's α 계수가 .5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나머지 구성개념은 Cronbach's α 계수가 .65-.85에 분포하여 모두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본 연구에서는 일탈행동의 체계적 비교를 위해, 신뢰도 지수가 낮았지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적으로 구성된 육체적 일탈유형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행동 및 심리학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변수와 구성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항목 수가 적을 경우 신뢰도 값이 낮을 수 있다(Klin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값이 낮다 하더라도 이론을 구성함에 있어 구성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측정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구성 개념	하위 구성 개념	구성 개념	요인 적재량	요인 공통성	신뢰도 α	
일탈적 관광 행동	사회형 일탈	여행지에서 호기심에 향정신성 약물을 접해본 적 있음	.859	.742	.75	
		여행지의 관광 매력물에 낙서나 흔적을 남긴 적 있음	.755	.618		
		여행지에서 사행성 오락(경륜, 경마 등의 게임링)을 즐겨 본 적 있음	.687	.550		
	내면형 일탈	평상시와 비교해서 여행지에서 주위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임	.783	.663		
		평상시보다 여행지에서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흥분하는 편임	.754	.654		.65
		평상시와 비교에서 여행지에서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편임	.698	.630		
육체형 일탈	평상시보다 여행 중에 음주를 더 즐기는 편임	.794	.652	.51		
	평상시보다 여행지에서 성적 호기심과 관련되어 더 관심을 갖는 편임	.745	.614			
놀이성	외향성	밝은	.839	.720	.85	
		활기찬	.825	.753		
		경쾌한	.818	.739		
	창의성	사교적인	.719	.581		
		창의적인	.843	.761		
		기발한	.805	.701		.80
즉흥성	상상력이 풍부한	.783	.683	.65		
	흥분하기 쉬운	.878	.772			
		감정적인	.811	.720		

3.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을 통하여 얻은 측정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일탈적 관광행동과 놀이성에 대한 모든 요인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탈적 관광행동과 만족도에 대한 요인 간에는 사회형 일탈이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내면형과 육체형 일탈간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와 육체형 일탈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관관계 계수들이 $p < 0.05$ 수준에 부합되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사회형 일탈	내면형 일탈	육체형 일탈	외향성	창의성	즉흥성
사회형 일탈	1.64(.679)	-	-	-	-	-	-
내면형 일탈	2.76(.728)	.337**	-	-	-	-	-
육체형 일탈	2.54(.850)	.364**	.300**	-	-	-	-
외향성	3.33(.645)	.059*	.139**	.138**	-	-	-
창의성	3.11(.662)	.108**	.178**	.172**	.564**	-	-
즉흥성	3.19(.700)	.082**	.249**	.185**	.313**	.241**	-
만족도	3.69(.637)	-.071*	.195**	.024	.406**	.365**	.168**

* p<0.05(two-tailed) ** p<0.01(two-tailed)

4. 놀이성 집단 차이에 따른 일탈적 관광행동의 차이분석

놀이성의 높고 낮음의 집단구분을 위하여 놀이성 측정요소에 따른 중앙값을 구하였으며, 중앙값을 기준으로 놀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구분을 하였다. 이는 〈표 5〉와 같다. 놀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표 5〉 놀이성 집단구분

전체 N	놀이성 중앙값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1148	3.26	놀이성이 낮은 집단	513	2.80	.29	-43.23	.000
		놀이성이 높은 집단	635	3.62	.34		

놀이성이 높고 낮은 집단에 따라 일탈적 관광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놀이성이 높은 집단의 일탈적 관광행동이 모두 놀이성이 낮은 집단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설 H₁에서 제시한 놀이성이 높은 집단은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6〉).

〈표 6〉 놀이성이 집단에 따른 일탈적 관광행동 평균 변화

구분	놀이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사회형 일탈	낮은 집단	1.59	.60	-2.499	.011
	높은 집단	1.69	.73		
내면형 일탈	낮은 집단	2.65	.68	-4.812	.000

	높은 집단	2.86	.74		
육체형 일탈	낮은 집단	2.40	.81	-5.104	.000
	높은 집단	2.65	.86		

6. 일탈적 관광행동과 관광 만족도의 영향관계 분석

가설검증(H₂)을 위하여 일탈적 관광행동 3개의 구성개념을 독립변수로 넣어 관광 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일탈적 관광행동과 관광 만족도의 영향관계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형 일탈과 내면형 일탈이 관광만족도와 영향관계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표7〉 일탈적 관광행동이 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관광 만족도	사회형 일탈	-.147	-.156	-4.904	.000
	내면형 일탈	.215	.245	7.892	.000
	육체형 일탈	.006	.007	.238	.812
$R^2 = .059$, 수정된 $R^2 = .057$ $F=23.964$, $p=.00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형 일탈과 관광 만족도는 부(-)의 관계로 분석되어 사회형 일탈을 할수록 관광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면형 일탈과 관광만족도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관광객이 내면형 일탈을 할수록 관광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관광객은 관광지에서 즐거움, 흥분, 즉흥적 행동을 하거나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몰입을 할 때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육체형 일탈과 관광만족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탈적 관광행동과 관광 만족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H₂)은 부분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일탈적 관광행동을 개인의 내재적 성향인 놀이성 개념과 만족도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놀이성이 높은 집단이 놀이성이 낮은 집단 보다 일탈적 관광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놀이성이 높은 사람은 관광지에서의 소극적인 내면형 일탈행동이 높을 뿐 만

아니라, 규범적 일탈의 측면인 사회형 일탈행동과 육체형 일탈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connell, Gerkovich, Bott, Cook, & Shiffman(2000)이 말한 인간의 놀이특성은 인간의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놀이특성에 따라서 관광객의 관광행동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일탈적 관광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Freud, Piaget, Vygotsky가 제시한 것과 같이, 놀이는 충동으로부터 나오며 개인의 내적인 쾌락추구에 대한 활동으로 이해하는 맥락과도 일치한다(서현숙, 2008). 놀이학자인 호이징하(1986)와 카이와(2003) 역시 놀이는 현실의 삶을 벗어난 활동의 영역으로 일반적 행동과 차별화하였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이며 즐거움과 재미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관점과도 관련된다. 관광지에서의 행동은 평상시보다 동적이고 즉흥적인 놀이행동과 관계되며, 이런 측면에서 놀이성이 높은 사람이 관광지에서 탈일상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관광의 일탈행동과 관광만족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사회형 일탈과 관광만족에는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관광객이 사회적 가치나 규범,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식되는 약물, 낙서, 사행성 오락 등을 관광지에서 하였을 때는 오히려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Uriely & Belhassen(2005)이 제시한 관광에서의 법적 위험(legal risk)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규범을 위반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이 커짐과 동시에 관광에 대한 만족이 저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일탈행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도 볼 수 있으며(Uriely & Belhassen, 2005), 이는 관광객이 규범을 위반한 자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취지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여 관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내면형 일탈과 관광만족도 사이에는 정(+)의 영향관계가 검증되었다. 즉, 관광지에서 관광행동이 평상시보다 주위 환경이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쉽게 즐거움을 느끼거나 흥분하며 즉흥적인 행동을 할 때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광객이 관광에 집중하여 적극적이고 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관광활동에서 몰입에 대한 영역으로도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관광객 몰입도와 관광 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와 연관됨 알 수 있다(김지희·한진수, 2011). 유재경(2007)의 연구에서도 관광객의 몰입의 정도에 따라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고몰입을 경험한 관광객일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육체형 일탈이 관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섹스관광(Ryan & Kinder, 1996; Uriely, Ram & Malach-Pines, 2011; Redmon, 2003; Wickens & Sonmez, 2007)과 음주활동과 같은 육체형 일탈행동과 관광 만족도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지는 않으며, 다른 경험의 구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일탈행동을 측정함에 있어 조사대상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 후 연구에서는 패널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사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관광지 일탈행동에 있어서 개인의 놀이성이 가진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것에 학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서 좀 더 구체화된 일탈적 관광행동 유형을 개념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탈행동과 심리적 차원을 비롯하여 구조적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탈행동과 만족도와의 관계만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놀이성과 성격 변수 등 다양한 심리변수들과 만족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또한 추적조사(follow-up study) 방식으로 놀이성의 정도를 일상공간과 관광지를 비교하고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해보는 연구 역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국제신문(2012.7.26). 어둠 깔린 백사장은 거대한 슬판...취객 추태·고성방가 '무법천지'.
- 김지선·이훈(2009). 고구관광 평가요인과 만족도 분석: 진정성과 HISTOQUAL 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6), 37-54.
- 김지희·한진수(2011). 박물관 방문 관광객의 동기, 몰입, 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관광연구』, 26(1), 73-94.
- 뉴스시스(2008.6.24). 직장인의 화려한 일탈 "여름 바캉스를 알차게".
- 뉴스시스(2012.7.9). 미리 가 본 보령머드축제...14일 개막 마니아들 설렌다.
- 박의서(2010). 섹스관광과 매춘에 관한 관광학적 이슈. 『관광연구저널』, 24(1), 175-190.
- 박진실(2007). 일탈성 체험이 축제만족에 미치는 영향: 보령머드축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현숙(2008). 놀이 개념의 분석과 교육적 가치.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재경(2007). 몰입(flow)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촬영지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1(1), 389-400.
- 이영진(2010). 해양 레저관광활동 참여과정에서 쾌락성(hedonic)과 유용성(utilitarian)의 조절효과. 『관광학연구』, 34(4), 35-59.
- 이훈(2006). 축제체험의 개념적 구성모형. 『관광학연구』, 30(1), 29-46.
- _____(2009). 놀이와 관광의 새로운 이해. (한국관광학회(2009)『관광학총론』). 백산출판사.
- 이훈·조희범·이영진(2010). 성인의 놀이성 지표개발. 『관광학연구』, 34(9), 165-188.
- 조태영·서태양(2009). 안동 하회마을 문화관광체험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7), 361-370.
- 조희범(2010). 놀이성이 관광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진남·김창경(2011). 제도적 아노미이론에 따른 전환기 중국청소년의 일탈행위 연구. 『아시아연구』, 14(1), 197-218.
- Barnett, L. A.(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_____(2007). The nature of playful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949-958.
- Beard, J. G., &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Caillouis, R.(2003). 놀이와 인간, Les Jeux Et Les Mommies(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 Caruana, A., & Vella, J.(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Playfulness and Viewers' Response to Advert Execution: An initial Exploration. *Management Research News*, 27(3), 61-76.
- Crompton, J. L.(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 Currie, R. R.(1997). A Pleasure- Tourism Behaviors Framework.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4), 884-897.
- Currie, R., & Gagnon, M.(2000). When Do Individual Become Pleasure Travellers?: An Exploratory Study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lfillment of Primary Expectations and the Liminoidal State.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8(2), 115-128.
- Dillman, D. A.(2000). *Mail and Internet Surveys: The Tailored Design Method*,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Elsrud, T.(2001). Risk Creation in Traveling: Backpacker Adventure Narr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 597-617.

Glynn, M. A., & Webster, J.(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 83-103.

_____ (1993). Refining the nomological net of the adult playfulness scale: Personality, motivational and attitudinal correlates for highly intelligent adults. *Psychological Reports*, 72, 1023-1026.

Guitard, P., Ferland, F., & Dutil, E. (2005).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Playfulness in Adults.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25(1), 9-22.

Gursoy, D., Spangenberg, E. R., & Rutherford, D. G. (2006). The Hedonic and Utilitarian Dimensions of Attendees' Attitudes toward Festival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0(3), 279-294.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T. L., & Black, W. C.(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NJ: Prentice Hall.

Huizinga, J.(1986). 호모루덴스, Homo Ludens(김윤수 역) 서울: 까치

Huo, Y., & Miller, D.(2007). Satisfaction Measurement of Small Tourism Sector(Museum): Samoa.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2(2), 103-117.

Iso-Ahola, S. E.(1981).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2), 256-262.

Kline, P.(1999).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London: Routledge.

Kozak, M., & Rimmington, M.(2000). Tourist Satisfaction with Mallorca, Spain, as an Off-Season Holiday Destin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3), 260-269.

Leep, A., & Gibson, H.(2008). Sensation seeking and tourism: Tourist role, perception of risk and destination choice. *Tourism management*, 29(4), 740-750.

Lika, A. E.(1986). 일탈의 사회학, Perspectives on Deviance(장상희, 이성호, 강세영 역) 경문사.

Lika, A. E., & Messener, S. F.(2001). 일탈과 범죄사회학,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장상희 역) 경문사.

O'connell, K. A., Gerkovich, M. M., Bott, M., Cook, M. R., & Shiffman, S.(2000). Playfulness, arousal-seeking and rebelliousness during smoking cess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671-683.

- Osgood, D. W., Wilson, J. K., O'Malley, P. M., Bachman, J. G., & Johnston, L. D.(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y Review*, 61, Aug, 635-655.
- Plog, S. C.(2002). The power of psychographics and the concept of venturesomenes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3), 244-251.
- Redmon, D.(2003). Playful Deviance as an Urban Leisure Activity: Secret Slaves, Self-Validation and Entertaining Performance. *Deviant Behavior*, 24(1), 27-51.
- Ryan, C., & Kinder, R.(1996). Sex, tourism and sex tourism: fulfilling similar needs?. *Tourism Management*, 17(7), 507-518.
- Schaefer, C., & Greenberg, R.(1997). Measurement of playfulness: A neglected the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6(2), 21-31.
- Shields, R.(1992). *Places on the Margin: Alternative Geographies on Modernity*. London: Sage.
- Smith, D.(1995). How Play Influences Children's Development at Home and School. *Leisure Today*, 19-23.
- Turner, L., & Ash, J.(1975). *The Golden Hordes: International Tourism and Leisure Periphery*. London: Constable.
- Uriely, N., & Belhassen, Y.(2005). Drugs and Risk-Taking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339-359.
- Uriely, N., Ram, Y., & Malach-Pines, A.(2011). Psychoanalytic Sociology of Deviant Tourist Behavior.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3), 1051-1069.
- Webster, J., & Martocchio, J. J.(1992). Microcomputer playful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with workplace implications. June: 201-226.
- Wickens, E & Sonmez, S.(2007). Casual Sex in the Sun Makes the Holiday: Young Tourists' Perspectives. *Population Mobility and Infectious Disease*, 4, 199-214.
- Wright, K. B.(2005). Researching Internet-Based Population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nline Survey Research, Online Questionnaire Authoring Software Packages, and Web Survey Servic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0(3), article 11.
- Yoon, Y., & Uysal, M.(200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al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a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26(1), 45-56.

Yuan, S., & McDonald, C.(1990). Motivational Determinates Of International Pleasure Tim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9(1), 42-44.

2012년 9월 18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2년 10월 13일 1차 심사완료

2012년 10월 25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2년 10월 25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